

국민일보

2016년 09월 05일 (월)  
12면 사회

# DMZ서 통일 염원 담아 달린다

## 세계청소년사이클대회 개막

평고, 부천고 등 14개 고교에서 136명이 참가했다.

## 내일까지... 8개국 72명 참가

대회는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순위경쟁, 전 구간 기록을 합산한 종합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 각각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열리는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6' 제1회 세계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가 3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개막돼 열전에 돌입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접경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6일까지 4일 동안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348㎞ 구간을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따라 달리는 행사다.

행자부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는 이 대회를 엘리트 청소년 부문 공식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다.

대회에는 스페인, 영국, 일본, 몽골, 홍콩,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에서 9개 팀 72명이 참가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체고, 가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9.8 X 11.4 cm

# '극한의 레이스' 100km 달리며 평화 기원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마감  
선수·시민 1천300여명 참가 성황**

경기도가 올해 최초로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에 마련한 '제1회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Trail Running)' 대회가 국내·외 전문선수, 동호인, 일반 시민 등 1천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과 DMZ 일대를 달리는 행사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대회는 지난 1일 100km 선수의 파주 캠프 그리브스 입소를 시작으로 2일(대회 1일차)에는 김포시, 3일(대회 2일차)에는 연천군, 4일(대회 3일차)에는 파주시 DMZ일대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참가자는 DMZ의 산과 들판 등 포장되지 않은 다양한 코스를 달리며 본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레이스를 즐겼다.

특히 전문선수를 위한 100km 풀코스(김포~연천~파주)와 연천 고대산 일대 50km 코스, 일반인을 위한 연천군 10km 코스, 파주시 13km 코스를 구성, 전문가부터 동호인, 일반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로 진행됐다.

김창학기자  
14.6 X 7.8 cm

# 임진각 DMZ센터 22일 문연다

**생태교육·공연·전시장 등 활용  
개관 첫 행사 DMZ생태 사진전**

DMZ 생태·역사·문화 등이 담긴 DMZ 생태문화센터(DMZ센터)가 파주시 임진각평화누리에 오는 22일 오픈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센터는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임진각평화누리내 80여

원이 투입돼 1만3천669㎡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2천950㎡)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임진각평화누리의 개방적 이미지를 고려해 평화누리과 수평하게 배치됐다.

1층(1천740㎡)은 다목적실, 생태교육장, 야외홀, 관리실, 2층(1천210㎡)은 생태서비스파트너쉽(ESP)아시아사무소, 전체 회의실, 카페 등으로 꾸며진다.

센터는 생태교육, 소규모 공연, 전시, 국제회의 등에 사용된다.

22일 열리는 개관식 첫날에는 DMZ 생태환경 특별사진전(김영만 작가 DMZ 마공계 사진 50점)과 DMZ일원에 분포하는 곤충표본 및 살아있는 곤충 전시회가 열린다.

센터건립은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으로 문체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DMZ 일원의 방문객 증가로 생태관광, 체험교육, 정보제공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DMZ 역사, 문화, 분단의 아픔, 생태환경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센터를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만구·조윤성기자  
22.7 X 7.5 cm

**도, 6일까지 DMZ 일대서 제1회 세계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

경기도는 6일까지 'Tour de DMZ(투르드 디엠지) 2016 제1회 세계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DMZ(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달리며 전 세계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로 도와 강원도,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5월 체결한 '평화통일 Tour de DMZ 공동협약'의 일환이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체고·가평

고·부천고 등 국내 14개 고교 136명의 청소년 사이클 선수를 비롯해 스페인·프랑스·중국·일본·몽골·홍콩·태국·우즈베키스탄 등 8개 국가에서 74명이 참가했다.

대회 첫날인 3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6일까지 도착지인 파주 임진각까지

총 348km 구간을 달린다. 이 코스들은 전체 구간이 접경지역으로 이뤄져 천혜의 자연환경과 군부대, 검문소를 수시로 지나는 등 DMZ 자전거 대회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만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1 X 4.1 cm